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4. 20 / (총 2매)	담당부서	통상협력담당관
과 장	남 복 현	전 화	044-202-2370
담 당 자	신 희 성		044-202-2373

박능후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(4.19)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

- 코로나19 대응, 디지털 헬스, 환자안전, 항생제 내성 등 논의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4월 19일(일)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보건 장관회의*(G20 Health Minister's Meeting)에 박능후 장관(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1차장)이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 및 국제기구의 공동 행동을 요청하는 한편, 각국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.

* '17년(독일)·'18년(아르헨티나)·'19년(일본)에 이어 이번이(사우디) 네 번째 개최

- G20 보건장관회의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월 19일, 20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상황 변경을 감안하여 4월 19일(21:00~00:20) 하루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,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△코로나19 대응과 대유행병 대비 △가치 기반 보건의료 △디지털 헬스 △환자 안전 △항생제 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한편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(3.26)에서 각국 보건장관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,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.

-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였으며, 관련 경험 공유와 지속적인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- 특히 G20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각국의 대응 우수 사례와 행동 조치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.
- 또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
- 현재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, 진단 도구 수출 확대,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언급하고, G20과 방역 역량 강화, 전문가 양성과 기술 공유 등 추가 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.
- 한편 의장국인 사우디가 제안한 ‘G20 가치기반 보건의료 글로벌 혁신 허브’에 우리나라도 참여하여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.
- 박능후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“G20이 이번 위기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,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전했다.

※ 공동 성명과 행동 조치(Urgent Action)는, 참여국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